

국제개발협력

이슈

ISSUE
BRIEF

브리프



농업 관련 국제기구

VOL. 13 | 2025. 2

KOICA YP 장지윤

KOICA YP 노유리

전북국제협력진흥원(JBCIA)는 KOICA 영프로페셔널(YP)을 중심으로, 최근의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국제개발협력 이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자, 세계 경제와 식량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신석기시대에 농경을 시작함에 따른 '신석기 혁명'이 문명의 시초로 받아들여질 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 뒤에는 항상 농업이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식량수급 불균형, 토양의 황폐화, 물 부족, 그리고 근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범지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류는 지속적인 식량위기를 맞이하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바로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이다.

농업 국제기구는 국가 간 농업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지원, 연구 개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¹⁾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와 기아 감소, 식량안보 해결 등 포괄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자원공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또한 농업 기술혁신과 식량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UN FAO와 협력하여 모로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등재·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KOICA의 글로벌 연수 사업으로 몽골 고비알타이주 대상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업 기술 선진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동 사업으로 아프리카 및 중남미(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말라위) 농업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기후스마트농업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협력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에 기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 특화분야인 농업을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진흥원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과 관련 국제기구들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제 농업협력의 확대와 함께 성장해온 농업 관련 국제기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사례를 통하여 이들이 세계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온 과정과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두 기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각각의 특징을 짚어보겠다. 이를 통해 글을 읽는 말미에는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의 비전과 이들의 활발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농업 발전을 위해 그 뒤편에선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들어가며

1. 농업 관련 국제기구는 무엇일까?
2.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3.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맺으며

참고문헌

1) UN FAO. (2021). Strategic Framework 2022-31.

1. 농업 관련 국제기구는 무엇일까?

농업 관련 국제기구는 전 세계의 식량안보, 농업 발전,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농업 관련 국제기구로는 UN FAO, IFAD,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등이 있다. 각 기구의 역할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기구명	설립연도	주요 역할	특징 및 주요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1945년	농업, 임업, 어업, 식량안보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정책 개발, 기술 지원, 연구 수행, 농업 통계 제공을 통해 국제농업 협력 주도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1977년	저소득 농민 대상 금융 지원 및 농촌 개발 촉진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자금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1961년	긴급 식량 지원 및 영양 개선	기아 퇴치를 위한 긴급 구호, 식량 배급, 영양 프로그램 운영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Consultative Group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1971년	농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연구, 품종 개량 및 기후 변화 대응 연구 수행

<표 1> 대표적인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과 역할

국제 농업기구의 등장은 시대적 요구와 글로벌 농업 협력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졌다. 특히,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농업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전쟁과 경제 대공황,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05년 국제농업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IIA)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국제 농업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IIA는 세계 각국의 농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IIA의 활동이 중단되었고, 전후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종합적인 농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IIA의 기능과 자산을 계승한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설립되었다.

UN FAO는 단순한 농업 통계 제공 기관을 넘어, 정책 개발, 연구, 기술 지원, 식량 안보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농업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FAO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과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과 빈곤 퇴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7년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이 설립되었다. IFAD는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UN FAO가 정책적 지원과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농업 협력을 이끌어가는 한편, IFAD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농업 발전과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UN FAO와 IFAD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개별 기관 소개를 넘어, 국제 농업 협력이 IIA에서 UN FAO로, 그리고 UN FAO에서 IFAD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 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확장되고 발전해 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찰함으로써 국제 농업 협력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 UN FAO

1) UN FAO의 소개와 역사

UN FAO는 세계 식량안보 증진, 영양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개발, 그리고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²⁾ UN FAO의 비전은 "Zero Hunger"로, 전 세계에서 기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³⁾ 현재 UN FAO는 194개의 회원국과 1개의 회원 기구, 2개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마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다양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⁴⁾

상술했듯이, UN FAO의 기원은 1905년에 설립되었던 IIA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IIA는 전 세계 농업 통계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농업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IIA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이후 이 기구의 자산과 임무는 UN FAO로 이관되었다.

UN FAO의 공식적인 설립은 1945년 10월 16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회의에서 34개국이 UN FAO 헌장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1943년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44개국 대표들과 함께 식량 및 농업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기구 설립을 논의한 유엔 식량농업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UN FAO는 "빵이 있으라(Fiat panis)"는 공식 모토 아래 글로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상징하며 설립되었다.⁵⁾

UN FAO는 헌장과 기본 규정(Basic Texts)에 의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⁶⁾ 이는 UN FAO의 임무, 목표,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UN FAO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UN FAO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Conference)와 이사회(Council)로 구성된다. 총회는 UN FA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가진다. 이외에도, 산하 위원회(프로그램 위원회, 재정 위원회 등)와 기술 위원회(임업위원회, 어업위원회 등), 그리고 5개 지역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룬다.

UN FAO는 설립 이후 세계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기에는 농업 기술 지원, 정책 개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회원국들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식량위기 대응 및 재난 복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UN FAO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식량안보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⁷⁾ 이 위원회는 UN FAO, IFAD,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공동 사무국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식량안보 및 영양 문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https://www.fao.org/republic-of-korea/our-office/about-fao/kr> (2025.02.04. 검색)

3) <https://www.fao.org/family-farming/detail/en/c/384754/> (2025.02.04. 검색)

4) <https://fao.or.kr/html/unfao/about.php> (2025.02.04. 검색)

5) <https://www.fao.org/north-america/our-office/our-team/en> (2025.02.06. 검색)

6)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77766882-a672-45df-b03a-b87018d4f6ad> (2025.02.04. 검색)

7) https://knowledge4policy.ec.europa.eu/organisation/committee-world-food-security_en (2025.02.04. 검색)

2) UN FAO의 주요 사업

UN FAO의 비전은 "Zero Hunger", 즉 기아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전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 강화, 영양 개선, 환경 보호, 그리고 빈곤 감소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한다.

2021년 6월 발표된 *FAO Strategic Framework 2022-31*에 따르면, UN FAO는 기아와 영양실조의 근절, 생활 수준 향상, 그리고 농업 및 식량 문제의 상호 연관성 인식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UN FAO는 '네 가지 더 나은 것(Four Betters)' 프레임워크—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⁸⁾ 이러한 활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하며, UN FAO는 특히 빈곤 종식(SDG 1), 기아 종식(SDG 2), 불평등 감소(SDG 10)와 같은 핵심 목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UN FAO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UN FAO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과 식량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UN FAO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GDP 성장률은 -3.5%p로 급락했으며, 신흥 시장,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었다.⁹⁾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수백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내몰렸다. 세계은행의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최소 8,800만 명에서 최대 1억 1,5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UN FAO가 활동하는 경제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UN FAO의 재정 구조가 최근의 주요한 도전 과제다. FAO의 예산 외 기부금의 95% 이상이 특정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자원 배분의 유연성이 제한되며, 장기적인 전략 수행에 제약이 발생한다.¹⁰⁾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연간 2조 5,000억~5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식 개발 원조(ODA)는 연간 약 1,530억 달러에 불과하여 막대한 자금 격차가 존재한다.¹¹⁾ 이에 따라 민간 부문 투자 및 기타 금융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UN FAO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혁신적인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N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식량 및 농업 지속가능한 전환(Food and Agriculture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FAST) 파트너십과 글로벌 식량위기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GNAFC)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먼저, FAST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The 2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7)에서 이집트 의장국 주도로 출범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FAO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¹²⁾

이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30년까지 지속

8) <https://www.fao.org/about/strategy-programme-budget/overview/FAO-Strategic-Framework/en> (2025.02.04. 검색)

9) World Bank. (2020).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0: Reversals of Fortune*.

10) FAO. (2021). *Strategic Framework 2022-31*.

11) FAO. (2021). *Strategic Framework 2022-31*.

12) <https://enb.iisd.org/cop28-fao-fast> (2025.02.05. 검색)

가능한 농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AST는 기후 금융의 품질과 양을 개선하고, 인류, 기후, 자연을 위한 3중 이익(triple wins)을 실현하며,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FAST 파트너십은 자금 접근성 향상, 지식 및 역량 강화 지원, 정책 지원 및 대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¹³⁾ 주요 활동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기후 금융 접근성 평가, 국내외 자금 접근을 지원하는 동료 간 학습 매커니즘 구축, 기후 금융 흐름 및 정책 분석, 그리고 농민들의 기후 적응 자금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35개 회원국과 8개 옵서버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정부 간 기구, 시민사회 단체, 청년 및 농민 단체, 다자개발은행, 글로벌 및 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4년 4월 개최된 첫 FAST 파트너십 이사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The 28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8)에서 발표된 지속 가능한 농업,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 기후 행동에 관한 에미리트 선언과 연계하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¹⁴⁾ 즉, FAST 파트너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GNAFC는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국제협력개발위원회, UN FAO, 그리고 WFP에 의해 설립된 인도주의 및 개발 행위자들의 연합체이다.¹⁵⁾ GNAFC의 주요 목표는 식량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인도주의-개발-평화(Humanitarian-Development-Peace) 넥서스¹⁶⁾ 전반에 걸친 집단적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GNAFC는 이를 위해 분석 및 지식 공유를 증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한다.

GNAFC는 식량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도주의 및 개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입 영역의 파트너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¹⁷⁾ 이 네트워크는 데이터 기반의 증거 중심 접근법을 개발하고, 역량을 구축하며,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준비, 대응을 목표로 한다. GNAFC는 특히, 개별 행위자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식량위기의 다면적 측면을 해결하는 데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 행위자들이 식량위기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GNAFC 파트너들은 식량위기에 대한 이해 증진, 전략적 투자 확대, 그리고 식량을 넘어선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총체적이며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과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GNAFC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예멘 국가 투자 프로젝트(The Yemen Country Investmen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GNAFC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5백만 유로(약 59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행되었다. 프로젝트는 예멘의 취약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금 지원, 농업 투입물 제공, 인프라 재건,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 그 결과, 약 20,000명의 개인에게 총 1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25,000가구에 고품질 종자, 비료, 농기구 등 농업 필수 자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50개 이상의 수자원 관리 인프라를 복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GNAFC의 사례는 제한된 자원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제 협력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 할 수 있다.

13) <https://www.fao.org/food-agriculture-sustainable-transformation-partnership/what-we-do/en> (2025.02.05. 검색)

14) 김종목, 「130여 개국 지속가능농업과 기후행동' 담은 선언문 서명...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경향신문, 2023.12.02.,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21133001> (2025.02.05. 검색)

15) <https://www.fightfoodcrises.net/who-we-are> (2025.02.05. 검색)

16)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이하 HDP 넥서스)는 인도주의, 발전, 평화의 통합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평화 활동 간의 일관성을 높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인도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개념이다. (<http://jpi.or.kr/wp-content/uploads/2022/03/JPI-PeaceNet-2022-03-%EB%AC%B8%EA%B2%BD%EC%97%B0.pdf>;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8135000504>)

17) <https://www.fsinplatform.org/global-network-against-food-crises> (2025.02.05. 검색)

3) UN FAO와 대한민국의 협력

UN FAO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는 '쌀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사업(Republic of Korea's Rice Value Chain Project)'가 있다. 이 사례를 대표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농업 분야 전문 지식과 UN FAO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협력 모델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쌀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사업'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UN FAO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력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일부 개발도상국(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¹⁸⁾, 2019년에는 가나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업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가나를 예로 들자면, 2020년~2024년 프로젝트 시행 이후 가나의 쌀 수확량은 2.1MT에서 4.7MT로 223% 증가했고, 농부 소득은 4.887%에서 15.747%로 322% 상승하였다.¹⁹⁾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국의 농업 관계자(농민,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국의 농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자립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연구 및 교육 기관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술 확산과 현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농업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지식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적이고 수익성 있는 쌀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벼 품종 개량, 현대적 농업 기술 도입, 정밀 농업 및 자동화 농기계 활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 및 가공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쌀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시장 접근성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부와 시장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비농업 분야에서도 쌀 가치사슬과 연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개발 및 실행 가능성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협력을 효율화하며, 현지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쌀 가치사슬의 주요 분야에서 국가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정책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참여국의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사업 대상국의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가 연구 및 교육 기관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농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고 개발하여, 지속적인 개입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은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식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을 촉진하며,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참여국은 자국의 농업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쌀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사업'은 단순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농업 발전과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경제 자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26841c9d-a9ac-4feb-9eb8-8c58a4042971> (2025. 02. 05. 검색)

19) KOICA Ghana Office, <https://www.facebook.com/koica.ghana/posts/the-rice-value-chain-project-where-koica-committed-8-million-dollars-to-improve-1335202920769318/> (2025. 02. 05. 검색)

3.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 IFAD

1) IFAD의 소개와 역사

“빈곤과 굶주림을 근절하기 위한 사명” IFAD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과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UN) 산하 기구로²⁰⁾,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굶주림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 기구이다.



IFAD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74년 세계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기근, 영양실조, 사망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빈곤과 식량 부족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였는데, 유엔 세계 식량 회의(World Food Conference)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²¹⁾

<그림1> IFAD 로고

출처 : IFAD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1977년, 해당 회의의 주요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IFAD 본부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였다. 당시 IFAD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유엔 세계 식량 회의에서는 이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²²⁾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시작을 알렸다.

IFAD의 기본 법적 근거는 IFAD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IFAD)에 의해 성립된다. 이 협정은 IFAD의 목적, 기능, 회원자격, 자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IFAD의 지배구조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Governing Council)가 있으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가 IFAD의 일반 운영을 감독하고 업무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조직구조는 총회에서 선출된 총재(President)가 IFAD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약 600명의 직원이 로마 본부와 40여 개의 국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결정은 총회나 집행이사회에서 이뤄지며 협정 개정 등 중요 사안은 총회에서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IFAD의 재원은 회원국 부담금, 투자 수익, 수혜국의 대출 상환금, 회원국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마련한다.



<사진1> 1974년 세계 식량 회의 현장

출처 : UN Media

IFAD는 1977년 12월 설립 이후, 세계 빈곤층의 75%가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 빈곤 타파에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양허성 조건으로 용자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의 회복탄력성 강화, 그리고 영세 소농의 금융 및 시장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ICT4D(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전략을 승인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 서울대학교. (2024). “유홍림 총장,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접견”.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50147>

21) UN FAO의 주관 하에 1974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 ‘모든 사람이 10년 이내에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22) Council of Europe. (1975). World Food Conference Resolution 583.

2) IFAD의 비전과 주요사업

IFAD는 '소규모 농업 중심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변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²³⁾ 즉, IFAD는 농촌개발에 있어 '소규모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 소규모 농업 개발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IFAD는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발전과 이들의 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빈곤을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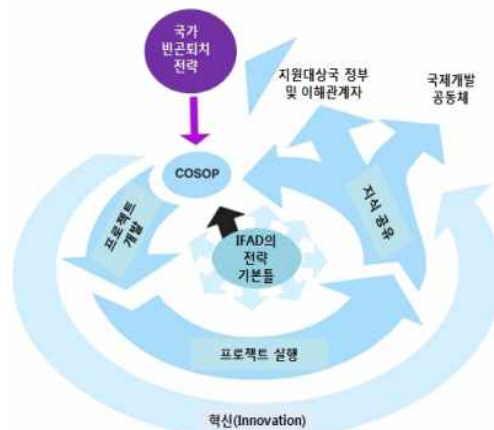
다시 말해, IFAD는 위의 비전을 바탕으로 '농촌 빈곤층의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활을 통한 식량안보와 소득 증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IFAD에서 지정한 세부 목표(Strategic Objectives)는 다음과 같다.²⁵⁾

1. 농민들의 생산 역량 증대
2. 농민들의 시장 참여 확대로 경제적 기회 증가
3.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과 기후 회복력 강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세부 목표 1번은 토지와 물 등의 기초 자원과 더불어 여러 농업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될 것을 기대한다. 2번은 소외받기 쉬운 소규모 농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IFAD는 관련된 투자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²⁶⁾ 3번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CSA)의 도입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업에 치명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농민들의 회복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목표는 SDGs 달성에 기여한다. 특히 IFAD는 빈곤 퇴치(SDG 1)와 기아 종식(SDG 2)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이 외에도 성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SDG 8), 기후행동(SDG 13) 등 다양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 분야 ODA의 흐름을 살펴보면, 1950-60년대 이후 전반적인 ODA 규모의 증가와 함께 농업 분야 ODA도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1970-80년대를 거치며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선진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로 인해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다. 이러한 위기는 당시 ODA 패러다임이 사회적 행정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²⁷⁾ 그러나 2000년대 들어 MDGs 채택을 계기로 농업 ODA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특히 IFAD는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IFAD의 농업·농촌 개발 분야 지원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이는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⁸⁾



<그림2> IFAD 사업 추진 체계

출처 : 지성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IFAD. (2023). IFAD Annual Report 2023.

24) IFAD. (2023). IFAD Annual Report 2023.

25) IFAD. (2016). IFAD Strategic Framework 2016-2025.

26) IFAD. (2016). IFAD Strategic Framework 2016-2025.

27) 지성태. (201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28) OECD. (2013).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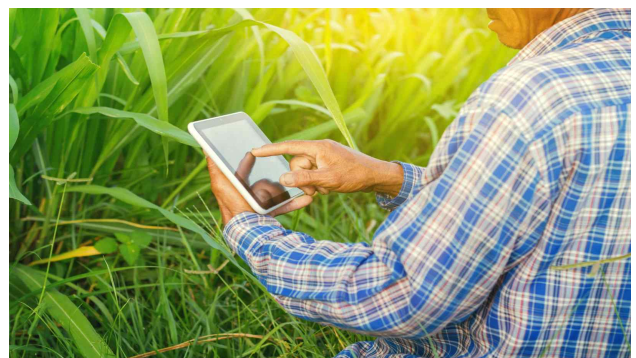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IFAD는 농업·농촌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Grow Asia와의 협력이다. Grow Asia는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과 ASEAN이 공동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AD와 Grow Asia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농업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로 2023년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소규모 농가 경제 강화(SEED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SEEDS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빈곤 농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규모 농가는 최신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²⁹⁾ 현재 약 1억 5천만 명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이러한 격차로 인해 농업의 현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SEEDS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 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농업 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원격 감지 기술을 활용하여 ICT와 농업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기반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자 농업(E-Agriculture)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³¹⁾



<사진2> 동남아시아 농업 현대화 모습
출처 : AgroSpectrum Asia



<사진3> 농사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농민
출처 : Grow Asia 공식 홈페이지

일례로, 필리핀 농무부는 위성 원격 감지 시스템과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³²⁾ 베트남은 정밀 농업(Precision Agriculture)³³⁾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의 ICT 기술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있다.³⁴⁾ 특히 디지털 농업 기술로 커피, 쌀 등의 주요 수출 품목의 품질 관리가 수월해짐에 따라 작물의 생육 조건 또한 최적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수원국 소규모 농가들에게 디지털 농업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더해져 다양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다. IFAD와 Grow Asia는 지속적인 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내 지역별로 불균형하였던 디지털 기술 보급률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새로운 기술혁신 접근성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9) Yamini Lohia. (2023). IFAD and Grow Asia to support farmers with digital tools to modernize agriculture in Southeast Asia. https://www.ifad.org/en/w/news/ifad-and-grow-asia-to-support-farmers-with-digital-tools-to-modernize-agriculture-in-southeast-asia?utm_source=chatgpt.com

30) Yamini Lohia. (2023). IFAD and Grow Asia to support farmers with digital tools to modernize agriculture in Southeast Asia. https://www.ifad.org/en/w/news/ifad-and-grow-asia-to-support-farmers-with-digital-tools-to-modernize-agriculture-in-southeast-asia?utm_source=chatgpt.com

31) IFAD. (2021). Digital Agri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A synthesis of ongoing work.

32) IFAD. (2021). Digital Agri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A synthesis of ongoing work.

33) 토양, 작물, 기상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를 활용한다.

34) IFAD. (2021). Digital Agri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A synthesis of ongoing work.

3) IFAD와 대한민국의 협력



<사진2> 제44차 IFAD 총회에 참석한
주원철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은 1978년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창설에 참여한 창립 회원국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은 IFAD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IFAD와 아프리카개발기금(ADF)의 성과 기반 자원배분 시스템(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 PBAS)을 통해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³⁵⁾ PBAS는 각 국가의 성과와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은 IFAD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의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IFAD의 핵심 파트너로서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50여 년간 협력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솔루션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Development Solut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발된 캄보디아의 'Chamk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도 유목민 여성 지원 사업이 있다.

○ 'Chamk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³⁶⁾

Chamka는 IFAD와 한국의 협력으로 개발된 캄보디아 농민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농업 생산, 시장 동향, 날씨 예보 등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농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Google Play 스토어와 Apple App Store에서 현지 언어로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는 IFAD의 'Technology as a Development Solu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ICT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빈곤층 생활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도 유목민 여성 지원 사업³⁷⁾

한국과 IFAD가 인도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토착 유목민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시장 가격, 최신 기상 정보, 취업 기회, 전통 지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범사업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확대될 예정이며, 농업, 금융, 건강, 교육 서비스의 전달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고립과 위험을 완화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3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DF)에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각 국가의 성과와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IFAD. (2021). The Republic of Korea-IFAD Partnership.

36) https://www.ifad.org/documents/48415603/49747502/IFAD12_RepKorea_web.pdf/87c4559d-7e6f-212a-3827-7d0657b80406?t=1726642473201 (2025. 02. 05. 검색)

37) 2013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장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면담」,

맺으며

UN FAO와 IFAD는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FAO는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회원국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반면, IFAD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를 핵심 역할로 하며, 국제금융기구(IFI)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처럼 FAO와 IFA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경우,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과 농촌 회복력 제고에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제기구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을 넘어, 국제 농업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자체적인 농업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업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과 친환경 농업 모델을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차원의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세계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탄소 저감형 농업 모델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AO와의 협력을 기반삼아 앞으로 다양한 농업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간다면, 전북자치도는 한국을 넘어 세계 농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분쟁, 경제 불안정 등과 맞물려 식량안보와 농업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FAO와 IFAD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고유한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농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실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UN FAO. (2021). Republic of Korea's rice value chain.
- UN FAO. (1981). its origins, formation and evolution.
- UN FAO. (2022). Food and Agriculture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Initiative.
- UN FAO. (2020). FAO History Highlights.
- UN FAO. (2022). FAO Strategic Framework 2022-31.
- World Bank. (2020).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0: Reversals of Fortune.
- IFAD. (2023). IFAD Annual Report 2023.
- IFAD. (2016). IFAD Strategic Framework 2016-2025.
- IFAD. (2002). IFAD Strategic Framework 2002-2006.
- IFAD. (2021). Digital Agri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A synthesis of ongoing work.
- IFAD&KREI. (201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and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UN FAO. (2024).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 IFAD. (2021). Rural Development Report.
- UN. (1974). Report of The World Food Conference.
- Council of Europe. (1975). World Food Conference Resolution 583.
- IFAD. (2020). The Republic of Korea-IFAD Partnership.
- IFAD. (2021). The Republic of Korea-IFAD Partnership.
- IFAD. (2023). Report on IFAD's Development Effectiveness.
- IFAD. (2021). IFAD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trategy 2022-2027.
- 농림축산식품부. (2015). 국제농업협력(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 국문.
- 차원규 외 8인. (2020).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다자성 양자원조 현황 및 특징,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이동규. (2022). 식량과 인권: 1960년대 후반 식량농업기구의 '기아로부터의 자유 운동'과 사회경제적 권리.
- 전수연. (1994). 19세기말 프랑스의 농업보호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후변화 극복 위한 케이(K)-농업기술 협력방안 논의.